

10강 - 학교폭력 개념 및 유형

■ 핵심용어(용어사전)

- * 학교폭력 :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 가해학생 :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
- * 피해학생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
- * 집단따돌림 :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

■ 사례 :

<사건의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A는 B, C, D등의 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학교 내에서 휴식시간에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하였다. 자살 직전에는 수학여행에서 다른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고, 자살 당일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

이에 A의 부모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A의 부모의 손해배상청구는 타당한가?

<이 사건의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학생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결말>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인 A가 자살에 이르렀으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하였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A의 부모들의 손해배상청구는 타당하다.

<전문가의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 학습>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하며(동법 제2조 3호),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동법 제2조 4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보고 있으며 그 특징적 요소로 첫째, 서로간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둘째, 학생들간에 발생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위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이며, 셋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며, 넷째로, 심리적 또는 언어적 공격행위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징

2008년 학교폭력SOS지원단 전화상담통계분석 결과보고서2008.1.1.-2008.10.31.-학교폭력상담 총 2720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 학교폭력 피해자

(1)피해자의 성별 : 학교폭력 피해는 여학생(35.9%) 보다는 남학생(64.1%)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피해자 학령 : 초등학교 25.1%, 중학교 53.1%, 고등학교 21.8%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1학년(21.1%), 중학교 2학년(17.6%)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피해자 이전 피·가해 여부 : 없음(71.7%)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8.4%), 가해(2.4%)로 나타났으며 피해자들은 신체적·성격적인 문제, 친구관계문제, 성적 등의 요인에 있어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기보다는 또래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해자 이전 처벌 경험에서는 학교징계(54.4%), 보호관찰 1호(16.5%), 경찰훈방(12.7%)로 나타났으며 가해자는 개인특성으로는 외향적인 성격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23.8%) 보통(17.2%)이나 왜소(9.0%)한 신체특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는 꼭 힘이 세거나 신체가 건강해서 가해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해자는 전반적으로 친구들이 많다는 특성을 보였으며(17.6%) 성적은 전반적으로 낮은편(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사건상황

(1)폭력유형은 신체폭행(33.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체폭행, 금품갈취, 성폭행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공격으로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힘, 따돌림,

위협 및 협박,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55.6%)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폭력형태는 1:1폭력보다는 집단폭력(54.9%)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피해자·가해자관계에서는 같은 학교(92.5%)의 동년배(77.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폭력이 주로 또래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피해기간은 1회성(36.0%)이 가장 많았는데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도 11.6%나되었다.

(5)사건발생 장소는 학교 내 교실(34.8%)및 학교 내 기타장소(24.4%)로 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사건발단은 이유 없음(57.3%), 보복(17.9%) 대인감정(1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피해(47.5%)가 정신적 피해(7.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 정서적 피해는 보복이나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34.9%) 학교폭력은 수업시간(19.5%)에 학교 교실 내에서(34.8%) 이유 없이 (57.3%) 지속적으로 (1개월이상 49.2%)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진행상황

(1)학교 보고 있음(69.5%)이 없음(30.5%)보다 많았으며 보고 저해요소로는 학교에 대한 불신(41.4%)이 가장 많았으며, 사건보고 수준은 담임교사(65.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해결의지는 보통(48.0%), 책임회피(31.6%), 비협조적(11.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담임선생님(65.7%)에게 상당부분 보고(69.5%)되고 있지만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태도(42.9%)로 인해 이후 학교에 대한 불신(41.4%)이 쌓이게 됨으로써 학교 폭력 보고율이 저하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80.6%로 신청한 경우(19.4%)보다 많았고, 신청자는 피해자측(50.2%)이 가해자측(0.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여부에서는 미개최(76.8%)가 개최(18.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치료요양(16.6%), 심리상담(9.4%)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처벌에서는 전학(13.7%), 학교봉사(12.6%) 서면사과(9.8%)로 나타났으며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근로인으로는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해 모르기 때문(50.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발생시 대부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신청하지 않으며(80.5%) 신청하지 않은 원인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50.6%)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보호조치로는 치료요양(16.6%)과 심리상담조언(9.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해자 처벌 조치는 전학(13.7%)과 학교봉사(12.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법적소송

형사소송형태에서는 없음(69.2%), 고소(13.2%), 경찰신고(3.8%)순으로 나타났으며 판결형태에서는 보호관찰처분 1호(36.3%) 기소유예(0.4%)순으로 나타났으며 민사소송형태에서는 없음(75.2%) 이 재판으로 간 사건(11.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의뢰인의 요구로는 사건처리상담(54.6%), 심리상담(30.3%) 법률정보문의(7.4%)로 나타났다.

라. 이상의 통계자료는 종합분석 하면

(1) 학교폭력 발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중학교 1, 2학년 시기에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학교폭력이 5학년 정도의 시기 부터 촉진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학교폭력의 감소 및 저연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및 신고교육을 시킴으로써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자 및 주변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신고하고 도와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다른 한편으로 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함으로 이에 대한 강력하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피해자의 성격은 보통, 외향, 내향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사건발단의 원인은 “이유 없음”(57.3%)으로 나타남. 이는 피해자의 성격이나 피해학생의 요인과 상관없이 학교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3) 피해자는 학교안 교실 내에서 동급생에게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에 집단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함. 수업시간에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존재하는 것과 상관없이 폭력행동이 일어나거나 선생님들의 관리능력을 제고해야함을 시사함. 이러한 교사들과 학교당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의 무기력함은 피해학생들의 신고율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학교폭력을 학교에 신고한 이후에도 학교의 조치인 자치위원회 개최율은 “미개최율이 75.2%”로 나타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아직도 학교가 미온적이고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범위내에서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지속적인 피해가 1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폭력이 49.2%로 나타났고, “보복”에 의한 폭력이 17.9%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일회성 폭력보다는 지속적으로 폭력이 재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6) 위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학교폭력이 같은 반에서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피해학생들은 많이 맞고, 다치고 정신과적 치료까지 받아야하는 상황이지만, 학교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부모와 학생들은 학교를 불신하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사건의 당사자들이 사건해결과 피·가해학생의 심리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3. 학교폭력의 유형 및 증가하는 폭력형태

가. 학교폭력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협박이나 집단괴롭힘의 피해유형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학교폭력 피해장소가 교사의 감독권을 벗어난 등하교길, 학교주변, 오락실, pc방 등으로 확산되고, 초등학생과 여학생의 학교폭력 가해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음란 폭행성 영상물을 모방한 심각한 학교폭력사안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동전을 뚫어 낚시 줄을 매달아 친구의 목에 밀어 넣고 숨이 멈출듯하면 꺼내고 또 다시 밀어 넣고, 목을 조여 기절시켜 마구 때려서 깨우는 기절게임, 컴퍼스로 손등찍기, 양팔·다리를 붙들고 흔들다 집어 던지는 그네놀이, 배에 칼등으로 긁는 수술놀이, 왕따를 당하기보다는 맞는게 낫다는 아이들, 괴롭힘을 당하느니 남을 괴롭혀 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며 내가 맞지 않기 위해서는 무리 속에 섞여 같이 폭행을 하고,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등 최근의 학생폭력은 대부분 집단 폭력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심리적 괴롭힘, 집단적 따돌림, 사이버 상 명예도용 및 명예훼손 등이 증가하고 있다.

4. 학교폭력의 구체적 유형

(1) 신체적 폭행 및 금품 갈취 : 신체적 폭력은 학생 또는 학생들에게 직접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먹이나 발로 때리기, 꼬집고 목 조르는 행위, 손가락 뒤로 꺾기 등과 같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는 폭력이 있고, 각종 칼, 컴퍼스, 몽둥이, 파이프 등 물건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형태이며, 구체적으로는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동, 장난을 빙자해서 때리거나 힘껏 밀치는 행동, 물건·흉기 등을 이용해서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행동들이 이에 해당한다. 금품갈취는 물질적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갈이나 범죄로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구체적으로는 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는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

(2) 정신적 폭력 : 정신적 폭력은 보통 괴롭힘으로 불리는데 언어폭력과 심리적 폭력을 포괄한다.

언어폭력은 학교폭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놀림, 욕설, 단점 등을 말하며 괴롭히는 폭력을 말하는데 적어도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거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그 영향이 강하고 지속적 이어야 한다.

심리적 폭력(심리적 괴롭힘)은 겁주고 무시하기, 따돌리거나 거부하기 등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며 상대방 스스로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자아개념이 위축되도록 의도되는 경우이다.

(3) 집단적 따돌림(이른바 ‘왕따’) : 한 집단의 소속원 중 여럿이 함께 또는 개인이 돌아가며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전에는 잘난 척 한다거나, 고자질 한다거나 등 주로 집단 내 비공식 규범의 파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신체불구, 비만, 성적불량 등 각종 선천적, 후천적 약

접을 지닌 이들을 표적으로 삼고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며 접촉자체의 차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다양한 형태로 일상화 되어 있어 증거 포착이 힘들며, 보복 등에 대한 우려로 사실은폐 경향이 높아 적발이나 단속이 쉽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집단에서 소외시키는 행동,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동, 다른 친구들의 접근과 도움을 막는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

(4) 사이버상에서의 폭력

최근 들어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과 관련하여 학교 폭력 중 가장 급증하고 있는 유형이다. 아바타를 무차별 공격하거나 게임아이템의 사기 또는 절도, 메일이나 모바일을 통한 반복적 협박, 비난 등이며 주로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함께 수반하는 특징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사이버세계는 가상공간이 아닌 실제 공간으로 느껴 현실과 혼동하고 있다는 점과 아바타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분신처럼 여겨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피해를 자아낸다는 점에서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은 또 다른 학교폭력의 형태로 문제되고 있다.

■ 정리하기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 평가하기

문제 1. 학교폭력의 특징적 요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2)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위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이다.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다.

(4) 심리적 공격행위는 포함되나 언어적 공격행위는 제외된다.

해설 : 정답 (4)

학교폭력의 특징적 요소로 첫째, 서로간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둘째, 학생들간에 발생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위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이며, 셋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며, 넷째로, 심리적 또는 언어적 공격행위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문제 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상 학교폭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3)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하며 특수학교는 특수학교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제외한다.

해설 ; 정답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문제 3. 학교폭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신체적 폭력은 학생 또는 학생들에게 직접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동, 장난을 빙자해서 때리거나 힘껏 밀치는 행동, 물건·흥기 등을 이용해서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행동들은 신체적 폭력에 해당한다.

(3) 금품갈취는 물질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갈이나 범죄로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는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

(4) 정신적 폭력은 보통 괴롭힘으로 불리는데 언어폭력은 놀림, 욕설, 단점 등을 말하며 괴

롭히는 폭력을 말하는데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거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 영향이 강하고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언어폭력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 정답 (4)

정신적 폭력은 보통 괴롭힘으로 불리는데 언어폭력과 심리적 폭력을 포괄한다.

언어폭력은 학교폭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놀림, 욕설, 단점 등을 말하며 괴롭히는 폭력을 말하는데 적어도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거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그 영향이 강하고 지속적 이어야 한다.